

'베트남 메시' 콩 푸엥, K리그行

인천 유나이티드 정식 입단
박항서 감독 "최고의 공격수"

베트남 국가대표 공격수 응우옌 콩 푸엥(22)이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정식 입단했다.

콩 푸엥은 14일 인천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 계약서에 정식 서명했다. 등번호는 23번이다.

이날 현장에는 전담수 인천 대표이사과 응우옌 부 두 주한 베트남대사, 콩 푸엥의 전 소속팀인 응우옌 탄 안 호앙아인잘라이FC 사장, 그리고 대표팀에서 콩 푸엥을 지도하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감독과 이영진 수석코치도 함께했다.

콩 푸엥은 "훌륭한 클럽인 인천에 입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베트남 대표팀 선수로서 이곳에서 잘 알려질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 입단에는 박항서 감독, 2015년 인천에서 썸(부리람 유나이티드)의 조인이 작용했다. "한국 축구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항서 감독을 만나서 한국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고 많이 배웠다. 썸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훌륭한 팀이기에 입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체력적인 부분, 또 많이 뛰는 부분이나 수비 능력도 개선됐다"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를 가장 잘할 수 있다. 한국 선수들은 체력은 크지만 수비 뒷공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름의 분석도 제시했다.

"부담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 더 많이 뛰고 침투하여 찬스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선 최고의 공격수다. 좁은 공간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점이 확실하다. 내 제자라 그렇게 아니라 직접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콩 푸엥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력보다는 한국 축구 팀포에 잘 적응할지 염려는 된다"면서도 "정신적으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는다. 여기서 다시



박항서 감독과 응우옌 콩 푸엥, 이영진 코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인천 유나이티드 제공>

시작한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콩 푸엥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다. 168cm로 키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무기로 베트남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축구 선수권 준우승, 아시안축구연맹(AFF) 스즈키

컵 우승을 이끌었다. 플레이스타일 덕에 '베트남 메시'라는 별명도 얻었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도 출전해 8강 일본과 경기에서 날카로운 드리블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했다.

콩 푸엥은 15일 경남 남해로 가 곧바로 전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뉴시스

'올해 트레블 간다'

전북현대, 23일 시즌 출정식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이 2019시즌 출정식과 함께 K리그·AFC 챔피언스리그·FA컵 등 트레블 달성 의지를 다진다.

전북현대에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2019시즌 출정식을 갖는다.

신임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팬들과 만나는 첫 공식 행사인 이번 출정식은 전북현대 팬이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출정식 1부에서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올 시즌 출사표와 신입선수 소개, 트레블 달성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선수들과 함께 하는 2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사인회, 포토타임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 팬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문선민, 한승규, 최영준, 김민혁 등 새롭게 전북에 합류한 선수들과 만나는 첫 자리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의 참여를 원하는 팬들은 입장시 1층 로비 출입구에서 손목 밴드를 지급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0명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2019시즌엔 관매도 실시해 현장에서 카드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팬들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많은 팬 분들이 찾아 주셔서 팀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올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한 협성을 함께 외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일 K리그 개막전 예매는 출정식보다 하루 앞선 22일(금) 낮 12시부터 실시되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뉴시스

프로축구연맹 신임 상별위원회에 윤영길·홍은아·김가람

프로축구연맹이 14일 신임 상별위원회로 윤영길 한국체대 교수, 홍은아 이화여대 교수, 김가람 법무법인 린 변호사를 위촉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멘탈 코치전문가인 윤영길 교수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사와 동대학원 스포츠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및 미래전략위원, 여자축구대표팀 멘탈 코치, 한국 스포츠심리학회 연구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심판 출신인 홍은아 교수는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리퍼버데에서 스포츠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3년 한국심판 중 최연소로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심판 자격을 딴 뒤 2008 베이징올림픽 준결승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심판장사, 평가관으로 활

동하고 있다.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 부과위원, AFC 심판분과위원 등을 지냈고 대한축구협회 이사로 재임 중이다.

김가람 변호사는 대학교 때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연맹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상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특히 선수 출신 상별위원들의 합류를 통해 선수들의 권익 보장 측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연맹 상별위원회는 조남돈(위원장·변호사),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별위원), 이종재(변호사), 윤영길, 홍은아, 김가람 위원 등 7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신임 상별위원들은 27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뉴시스

도르트문트에

선제골 '꿀맛'

손흥민, UEFA 챔피언스리그 1차전서
토트넘 3-0 완승 거둬 8강 가능성

이정도면 '꿀 중독'이다.

손흥민(토트넘)이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0으로 팽팽한 후반 2분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3-0 완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다. 또 리그 포함 4경기 연속골로 시즌 16번째 골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이번에도 도르트문트를 울렸다는 점이다.

손흥민은 그동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다. 이날 골까지 보태면 11경기에서 9골이다. 경기당 0.82골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다.

도르트문트와의 '좋은 인연'은 분데스리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기 전에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다.

즐거운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골 감각이 매서웠다. 특히 2012~2013시즌에는 두 차례 대결에서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퍼부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손흥민은 '양봉업자', '꿀벌킬러'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여 꿀벌을 연상하게 하는 도르트문트의 유니폼 때문이다.

이번에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천적임을 입증했다.

손흥민의 임무가 막중한 경기다. 특급 공격자원인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부상으로 전



손흥민(오른쪽)이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0으로 팽팽한 후반 2분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트넘은 조별리그에서 2위로 겨우 토너먼트에 진출한 반면 도르트문트는 1위로 통과했다. 또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을 따돌리고 선두에 있는 팀이다.

토트넘의 런던 홈경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전 반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우세가 점쳐졌던 경기다.

그러나 전반을 0-0으로 마친 뒤, 후반 2분 만에 손흥민이 분위기를 확 바꿨다. 안 베르통이 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눈스톱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방향만 바꿔 균형을 깬다.

이후 베르통은, 페르난도 요렌테의 릴레이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자축했다. 실점 없이 3골을 기록하면서 원정 2차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이 치른 12경기에서 11골을 몰아쳤다. 몰운 골 감각이다.

2차전은 다음달 6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다. 독일 축구와 도르트문트에 손흥민은 그야말로 공포다. /뉴시스

"LA 다저스, 올 시즌 최고의 투수팀"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이 LA 다저스를 2019시즌 최고의 마운드를 가진 팀으로 평가했다. 류현진(32)의 존재도 다저스의 마운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MLB닷컴은 14일(한국시간) 통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다저스 투수진이 경기당 3.87을 실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소 실점이다.

상대의 득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투수진은 다저스의 가장 큰 무기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최근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최소 실점 1위에 올랐고, 최근 4년 내내 최소 실점 5위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전망이다.

올 시즌에도 다저스가 최강 마운드로 꼽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네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류현진의 잔류, 기량이 좋은 투수들이 많이 보유한 것 등이 꼽혔다. /뉴시스



박성현 프로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박성현 프로 후원 조인식'에서 싸이러스 세라팍 부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성현, "목표는 LPGA 시즌 5승"

필리핀 블룸베리 리조트와 손 잡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스타 박성현(26)이 필리핀 기업인 블룸베리 리조트&호텔과 손을 잡았다.

박성현은 블룸베리 리조트&호텔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하고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인식을 했다. 앞으로 2년간 블룸베리 리조트&호텔 산하 솔레어 리조트&카지노의 로고를 달고 LPGA 무대를 누비게 된다.

"스타 박성현"으로 확실한 대우를 받았다. 박성현의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은 "양측 합의 하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발표하지 못하지만, 박성현의 명성에 부합되는 수준인 여자골프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과 계약이 끝난 박성현은 새로운 후원을 모색해왔다. 박성현은 2년 전 하나금융그룹과 계약할 당시 연간 20억원(후정)을 받은 바 있다.

박성현은 201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다승왕,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5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2017년 LPGA 투어에 진출한 박성현은 2년간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통산 5승을 거뒀다.

박성현은 블룸베리 리조트&카지노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역대 최고 대우로 맺은 메인 스폰서 계약은 새로운 동기부여도 됐다. 박성현은 "저를 믿고 후원을 결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메인 후원사가 생긴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LPGA 대회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새 LPGA 3년차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의 플레이를 지켜가면서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겠다. 한 대회, 한 대회 집중해서 우승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박성현은 LPGA 데뷔 첫 해인 2017시즌 2승을 따냈고, 지난 시즌에는 3승을 달성했다. 이제 박성현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박성현은 "매년 목표는 계속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즌 5승을 목표로 잡았다. 그 중에 메이저 대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뉴시스